



주한미군 전우회 KOREA DEFENSE VETERANS

“보이지 않는 영웅들(UNsung Heroes)” 소식지

2021년: “국방과 외교,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주한미군 전우회(KDVA)의 사명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대장 (예)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및 회장

주한미군 전우회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동맹이자, 깨질 수 없고 대체불가능한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진은 2020년 주한미군 전우회의 성과를 토대로 2021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으며, 대북협상 전자권 전환 관리, 방위비 분담에 대한 신속한 협력과 국방 이슈를 넘어서는 협력 등과 같은 중요한 한미동맹 이슈를 해결하게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국방과 외교”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3-D 시리즈라 일컫는 ‘국방 및 외교 대화 (Defense and Diplomacy Dialogue)’를 도입하여 핵심 리더들이 모여 한미동맹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우회는 귀하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지부를 지속 창설해나가며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이 소식지와 분기별 저널을 통해 이미 보셨겠지만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참전용사들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우리 전우회에 가입할 것을 적극 장려합니다.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해” 과업을 수행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1월 뉴스 헤드라인

1월 7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김정은의 저당대회 연설이 대외관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방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

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80억원 (72만 8천 미 달러)을 1950년부터 53년의 한국전쟁 동안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

1월 15일: 북한은 평양 중심부에서 최신키슈만 할아버지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며 열병식을 진행하였다고 국영 매체가 보도하였습니...

1월 22일: 문 대통령은 국가 안전보장회의 동안 “정부는 더우더 포괄적이고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

1월 25일: @LloydAustin (미 국방장관) 대한미군 국방부장관 서욱과 첫 번째 전화통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가장 연합되고 유능한 군사동맹 중에서도 그와 훨씬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월 2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 @DogfaceSoldier 백서를 맞았습니다. 2번째 투여가 완료되었습니다. 통증 없이 완벽합니다. 바이러스 끝내기 위해 힘쓰는 브라이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월 28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SecBlinken 오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와 저는 평화와 안보 그리고 자유와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의 리치핀인 한미동맹의 힘과 그 중요성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가 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한미동맹을 키워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주한미군 전우회의 다음 분기 “한미동맹”저널은 2021년 4월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저널에 투고할 기고분을 3월 12일까지 kdv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1950-1953년 가 이어진 한국전쟁에 참여한 22개국의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200만개의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0만개는 외국군 참전용사들 중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마스크 100만개를 전달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마스크 전달이며, 당시 그중 50만개가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약 195만명의 병력이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등에서 참전했으며, 그 중 37,902명이 전사하고 103,4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1월 13일: 주한미군은 지난달 초에 최일선의 의료진들이 첫 번째로 백신을 맞게 된 후 더 많은 인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2월 25일 최일선에서 활약중인 의료진을 위한 모더나 백신 물량이 지급되었으며, 지난달 이후로 해당 의료진과 응급의료인력 및 지휘부에게 접종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의료인력에 포함된 카투사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의 인원들 또한 개인별 동의 하 백신이 투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투사는 “미 육군 배속 한국군”의 약어인 KATUSA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오산기지 - 1월 13일 오후 4시 “덜덜덜덜!” 대한민국 역대급으로 가장 쌀쌀한 날씨조차 임무준비 상태의 오산기지 병력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매일마다 맹추위를 대담하게 견뎌내는 모든 부대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1월 19일 주한미군 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은 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위한 고별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미는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전반기 훈련은 3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해당 훈련에 대해 대북 침략연습이라 주장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전 발발한 한국전쟁을 포함한 역사적인 예시가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한미동맹재단의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해주신 해리스 대사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제8회 한미동맹포럼

The 8th ROK-US Alliance Forum

주제: 한미동맹
Reflections on the Alliance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Harry Harris, U.S. Ambassador to ROK